



가나안 이야기

「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운

샬롬! 예루살렘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시지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인 '건기'의 끝자락에서 이제 곧 찾아올 '우기'의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을 삽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유대력으로 새해를 맞이했고 또 대속제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막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산다는 것은 때로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즈음 해서 한국은 이제 곧 추석을 맞게 되지요. 현장에서는 추석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는 없지만 인터넷 방송을 보며 또는 카톡으로 전해져 오는 추석 안부 인사를 접하며 추석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추석 한가위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귀성 길에 안전한 여행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위해 기도합니다.”**

■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아시다시피 저(다비드)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의 한국에서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기도해주시고 또 염려해주시는 덕분에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 중 미국 측(I * B)에서 저의 비자문제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또한 미국 측(I * B) 행정 담당자를 통해 종교비자 취득관련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이스라엘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서 이 문제로 파견회사와 미국 측과의 협의 후, 이제 저희 가정은 동유럽으로 잠시 나가 있으려 합니다. 출발 시점과 장소는 2017년 10월 7일(토), 체코(프라하)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잠시 머물면서 체코와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및 관련 사역 단체들과의 접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에 있을 협력을 위한 사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년 간의 여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과 관련 커뮤니티와의 접촉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사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 속에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곳에서의 또 다른 삶과 사역이 이뤄지다 보니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아버지의 선한 인도하심과 현장에서의 만남 그리고 도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새로운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한국 방문 이후에 찾아온 몇 가지 변화 중 하나는 앞으로 미국 측(I * B)과 협력을 전제로 미국 회사 내에 관련 업무로 '한국인 팀장' 자격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 이후에 곧 바로 팀장 단 회의가 여러고에서 3박 4일간 진행되었고 앞으로 각 지역 팀장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며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과 관련 해서 감당하게 될 책임과 역할이 있기에 적지 않은 부담이 제게 있지만 기도하며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간의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또 일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익히려 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전제로 연의 진보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은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또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도 있어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한 인수인계 문제나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과의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저의 부재 시 팀 사역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저의 빈자리를 대신 감당해 주기로 해서 감사하고 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팀원들과 현장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십시오.

■ 사역 이야기

오늘 베크원 마을을 찾아가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며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켠이 찡해 왔습니다. 한동안 아이들을 못 보게 된다는 아쉬움과 팀원들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어서 인사는 잘 모르겠지만 눈시울이 잠시 젖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부터 요르단 대학교에 함께 견학하기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하닌'에게 특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의 꿈(의사)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요약 아저씨와 마야안(아굽) 가족과도 작별 인사를 나누려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에게 찾아온 새로운 변화에 의심이나 관계에 있어 소원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관계하며 섬기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족입양 감사 기도회



협력을 위한 모임 1



협력을 위한 모임 2



침례신학대학교 방문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가족



여리고 회의



의사가 되고 싶은 '하닌'

「 기도제목 」 “*Flowers will bloom where we planted together*” – David J. JUNG

1. 이스라엘에서의 삶과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필요한 준비도 잘 할 수 있도록
2. 유럽 내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역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도 채워질 수 있도록
3. I*B와의 협력을 위한 사역과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종교비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4. 공석 중 베두윈 사역(타마르 프로젝트)이 원활하게 진행되며 동역자들 간 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5. 요압 아저씨와 마아얀 그리고 이브라힘 가정의 예수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연락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 단아, 도하, 다온) ■ 외환(하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코리엘 프로젝트 ■ 외환(하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p>※ 주 소 : 종교비자 진행을 위해 1년간 이스라엘 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p> <p>※ 연락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p>